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 더 잘해 보니, 거기서 ‘더 잘하는 것’ 이 훤히 보였다.
2. <더 잘하지 않았을 때>는 ‘더 잘하는 것’ 이 안 보였지만, 더 잘해 보니 거기서 ‘더 잘하는 것’ 이 또 보였다.
3. <산>을 하나 넘고 보니, 그 뒤에 ‘더 높은 산’ 이 보였다.
4.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키가 큰 사람’ 이 있어도 안 보인다. 앞 사람을 지나서 가면, 뒤에 ‘키가 큰 사람’ 이 보인다. 이와 같이 <할 일>도 열심히 더 잘해 보니, 그다음에 ‘더 잘하는 방법’ 이 생각나고 보였다.
5. 더 잘하려고 생각하고 더 잘하니까 하나님은 ‘더 잘하는 것’ 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 고로 그것을 가져오게 됐다.
6.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니, 하나님은 ‘긴 산수화 돌’ 을 찾게 하셨다.
7. <더 잘하기>다.
8. <더 잘하기>는 ‘더하기’ 다.

9. 오늘 모임이 있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성령께서 조은 목사를 통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셨다. 비가 와서 ‘더 잘하기’를 못 하게 되니, 성령께서 조은 목사를 통해 실내 장소를 빌려 놓게 하신 것이다.하나님은 <더 잘하는 기간>에 이와 같이 해 주신 것이다. 이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비가 안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 단계만 벗어나는 세계이니, 성령께서는 아예 “<더 잘하기>를 하려면 옮겨야 된다.” 하시어 옮기게 됐다. 고로 실내에서 하고, 비가 개면 잔디밭에서 뛰면 된다.

10.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에 미리미리 거기에 맞춰서 행하시고 나서, 잘하라고 말씀하신다. 항상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하신 것이다. 시작하셔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신다.

11.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는 기간’이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미 더 잘하도록 역사를 하고 계셨다. 왜? <더 잘하기>는 사람만 해서는 못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쥐서 해야 뜻이 이뤄지지, 너희만 해서는 뜻이 이뤄질 수 없다.” 하셨다.

12.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데>에 있어서 먼저는 ‘신령한 자’요, 그다음에 ‘육 있는 자’다. 고로 하나님께서 <육 있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는 이미 ‘신령한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3. 하나님은 이미 <더 잘하기 역사>를 해 오고 계셨다. 이같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도 미리미리 하시고, 또 할 것을 다 하시고 벌써 떠나셨다. 그러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잘하기’를 실천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딱 붙어서 역사를 펴 나가게 된다. - 하나님은 늘 이같이 역사를 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해 왔던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가령 “집을 지어라.” 하고 선포하면, 이미 그 전부터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같은 역사를 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1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셨다.
15. <육 있는 자>가 먼저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먼저다. 고로 <신령한 자, 하나님>께서 먼저 해 오셨다. 고로 하나님은 <먼저 해 오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해 왔으니, 너희도 더 잘하려면 얼른 부지런히 해야 된다.” 하셨다.
16.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이 해 오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다.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만 쏟아붓고 가신다. 사람들이 그 후에 3년, 4년, 5년이 지나고서 그제야 깨닫고 시작하나, 그때는 ‘혼자’ 하면서 가야 된다.

17. <새벽>에도 성령님께서서는 ‘내가 일어나야 할 시간’에 안 일어나면, 깨워 놓고 그냥 가신다. 깨웠을 때 일어나면 같이 행해 주시고, 안 일어나면 성령께서 그냥 가시니 그때는 ‘혼자’ 행해야 된다. 고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에 행하면 <하늘>과 같이 동행하고, 그 시간에 행하지 않으면 <혼자> 행해야 된다. 그것이 다르다.” 하셨다.
18. <선생>이 무슨 일을 이야기했을 때 나와 같이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혼자 행하게 된다. 그러니 심심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적적하다. <육체만 굴러다니는 육신>이 된다. 육신은 <영>과 같이 굴러다녀야 된다. 고로 늘 말씀하기를, “나는 <영>이고, 너희는 <육>이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깨달아야 된다. 홀로 <산>을 넘고, <들>을 넘어가 보아라. <결국>은 ‘적적’이다. <결국>은 ‘쓸쓸’이다. <혼자 있어도 쓸쓸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19. 항상 <하나님과 동행, 성령님과 동행, 주와 동행>이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사탄’이 동행한다. 그런데도 안 보이니 모른다. 본인이 ‘영의 세계’를 제대로 못 보니 모르는 것이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동행>하면, 천사들이 ‘사탄이 오는 것’을 보고 그냥 두지를 않는다. <천사들의 책임>이기에 그러하다. <빛>가운데 ‘어둠’이 동행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동행>하면 자동적으로 사탄이 올 수 없는 것이다.

21. <더 잘하는 데에 실천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자>는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22. <더 잘하기>를 실천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동행하게 된다.
23. 아무리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간다. 왜? <위치> 때문이다. 더 잘해서 우리가 위치를 옮겨 가면, 그때는 사탄이 숫자로도, 능력으로도, 생각으로도 따라올 수가 없다. 고로 그때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행하는 것이다. <만사의 모든 일>도 더 열심히, 더 잘하면 그런 군더더기들이 다 떨어져서 없어진다. 고로 잘되고, 형통한다.
24. 더 잘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곤고한 것도 많이 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과 주가 시키신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또 투덜대면서 “누가 이렇다. 주님이 이렇다.” 하며 남에 대한 말, 주님에 대한 말 하지 말고, <말씀>을 딱 들어야 된다. - 이런 자가 아직도 있다. 이런 자는 휴거가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이다. 휴거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차>가 ‘진짜 새 차’ 이면, 골골하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다.

◎ 계속해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잘 듣고 모두 부지런히 잘하기를 바랍니다.

25. 가령 농사를 짓는데 감부기가 생기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

지?” 하지만, 이때는 다른 사람이 감부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감부기를 만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곡식에 영양을 제대로 못 주었든지, 관리를 못 해서 병이 들게 했든지 하여, ‘본인’이 그리 만들었다는 것이다.

26. <많은 수를 셀 때>는 반드시 100개가 되지 않고, 그중에 처져서 거기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말들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자>만 간다. <완전한 자>만 ‘완전한 세계’에 가게 된다. 고로 더 잘해라. <더 잘하기>다.

27. 지금은 <같이 사는 기간>이다. <같이 사는 기간>에 제대로 못 살면, 서로 물러가게 된다. 이때 제대로 흠 없이 살아야 된다. 감사,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주에 대해서도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주를 딱 잡고 해야 된다. 항상 이 같은 삶을 살고, ‘이상적인 역사’를 살아야 된다. 꼭 그래야 된다.

28. 어떤 교회는 가정국도, 장년부도 많이 있는데 교역자만 매일 청소하고, 교회를 살핀다고 했다. 교역자를 머슴처럼 부린다고 하기에, 즉시 전화해서 그 교역자만 다른 교회로 옮겨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교회 교역자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 갈 것이라고 했다. 가정국, 장년부들이 게을러서 그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 앞에 잘 못 온다. 주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육신’을 통해, 그 ‘입’을 통해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속이 시원

하다.” 하셨다. 하나님은 우물쭈물하시겠느냐. 선생이 불을 넣은 기간인데, 불을 안 넣겠느냐. 그냥 차 버린다. 반드시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29. 지금 이때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큰일 난다. 왜? 지금은 <같이 사는 기간>이라서 그리하면 ‘이혼’이다. <같이 살기 전>에는 모르지만, <주인을 만났을 때>는 그대로 이혼이다. 회개하면 복직은 시켜 주되, ‘신부’는 못 되고, ‘일반적인 구원에 속한 자’가 된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황금성 천국에는 절대 못 간다. 잘해도 황금성 천국 건너편, 멀리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된다.

30. 하나님은 늘 최선으로 인간에게 잘해 주시고, 더 이상 없이 잘해 주신다. 그리고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겪게 하면서 구원과 휴거를 이루게 하신다. 그랬는데도 안 되면, 영원히 끝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3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잘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면, 너희만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와는 이미 너희를 위해 그 말씀대로 해 왔다. 고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너희가 딱 맞춰서 더 잘하면, 그 행위대로 나와 내 보낸 자와 일체 되어 간다. <행하는 자>는 나와 일체 되어 행하고, <그리지 않는 자>는 미련 없이 두고 그냥 간다.” 하셨다.

32. 어떤 사람이든 행한 대로 받고 간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며 가야 된다. 그런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 되어야 한다.

33. <하나님께서 시대 구원자를 보내신 것>은 ‘표상’ 이라서 보내신 것이다. 그를 통해 보이시며 “이와 같이 하라.” 하심이니, 그와 같이 해야 된다.

34. <머리>가 하면, ‘지체’ 는 머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살았든지 죽었든지 ‘불구자의 지체’ 다.

35. <선생>이 운동할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오른발로 배로 더 잘하게’ 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오른발을 다쳐서 못 쓰게 돼서 그때 ‘왼발’ 로 조금씩 볼도 건드려 보고 차게 되었다. <이>가 없으면 이를 해 넣을 때까지 ‘잇몸’ 으로 먹듯이, 그렇게 없는 대로 서툴게 ‘왼발’ 로 했다. 오른발을 다치고 나서 6개월 동안 안 나왔다. 고로 그때 6개월 동안 왼발을 쓰다 보니, 결국 ‘왼발, 오른발’ 양쪽을 다 쓰게 되었다. 한 발을 가지고 ‘배’ 로 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무리가 되니 하나님은 이같이 ‘두 발’ 을 다 쓰게 해 주셨다. 고로 ‘황금다리’ 가 되었다. 오른발을 다쳐서 왼발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만일 타락되고, 혹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육신이 타락했으니, 이제 끝났다.” 하지 말고, 그로 인해 ‘영’ 을 개발해야 된다. 영적으로 살면, ‘영’ 은 타락이 안 되니, ‘영적 개발’ 을 해서 ‘영’ 을 앞세우라는 것이다.

36. <오른손>은 늘 글을 쓰고, 다른 일도 다 오른손이 하는데, ‘영양’ 은 왼손에도 똑같이 가기에 “왼손아, 너는 뭘 하는 것이

냐?” 했다. 하루 종일 <왼손>이 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왼손’도 ‘오른손’이 하듯 만들어서, 이제는 운동할 때 오른손과 같이 왼손도 한다. 그러니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른손의 힘이 더 강하니, 왼손이 그 힘을 맞추지 못해서 볼이 다른 데로 갔다. 두 힘을 합해 놓으면, ‘더하기’가 돼서 큰데, 서로 맞추기가 힘들었다. 더 잘하려면, <오른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왼손>도 같이 해야 잘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도 늘 ‘두 손’으로 한다. <테니스를 칠 때>도 그러하고, <축구를 할 때>도 ‘두 발’을 다 쓰며 골을 넣는다.

37. <오른손>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왼손’은 놀고 있다. <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체’는 놀고 있다. <오른손>은 ‘주’와 같고, ‘하나님’과 같다. <왼손>은 ‘신부’와 같다. 항상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움직이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강력한 힘, 대단한 힘’이 있다. <한 손>만 발달된 사람이 ‘두 손’으로 하면, 볼이 다른 데로 간다. <두 손>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 손’만 쓰니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두 손>으로 하기만 하면, ‘엄청난 힘’이 주어진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 <더 잘하기>를 위한 실존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해 준 것입니다.

38. 더 잘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하나 되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축구 할 때>도 보면, 사람들에게
15분을 주면 두 골밖에 못 넣지만, 나와 함께 할 때는 여덟 골
도 넣고, 더 잘하게 된다.

39. <하나님과 같이 하기>, <성령님과 같이 하기>, <주와 같이 하
기>다. 혼자 하면, 더 잘할 수가 없다. 그러니 결국 다른 사람
에게 뒤처지게 된다. 뒤처지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감도 잃게 되
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게 된다. <신앙>도 그러
하고, <삶>도 그러하다.

◎ 내일 아침에 또 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